

# 국어(지역인재)

(과목코드 : 014)

2025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밑줄 친 말의 의미가 같은 것끼리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일을 너무 재다가는 아무것도 못 한다.
- ㉡ 어떤 사람인지를 잘 재어 보고 결혼을 결정하게.
- ㉢ 그는 좀 잘했다 싶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재서 탈이다.
- ㉣ 저렇게나 입을 재게 놀려 대니 무슨 말을 믿고 할 수가 있겠느냐?
- ㉤ 공부 잘하고 싸움 잘하는 그 아이는 늘 자기가 최고인 양 친구들에게 재고 다닌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2.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표준발음은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발음을 바탕으로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발음과 차이를 보인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발음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표준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 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 ① 그 기사가 신문에 났다.
- ② 이 고장은 예로부터 큰 선비가 많이 났다.
- ③ 이제야 광고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
- ④ 그는 전쟁 기간 동안 시골에서 3년을 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3.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는 것이 힘이다.
- ② 먹을 만큼 먹어라.
- ③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 ④ 그가 떠난지가 오래다.

4.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름이 가까워졌다. 벼룩, 모기, 파리가 나타날 것이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하자. 이 세 가지 벌레 중 어느 것을 제일 사랑하느냐고. 답은 반드시 이 셋 중에서 택해야 하고, 답이 없는 백지를 내놓아서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벼룩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벼룩은 피를 빨아먹는다. 이 점이 가증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아무 소리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빨아먹는 점은, 솔직하고 시원시원하다. 그런데 모기는 그렇지 않다. 단번에 피부를 쿡 찌르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철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찌르기 전에 웅웅거리며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것은 딱 질색이다. 만일 그 웅웅거림이, 사람의 피는 자신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질색이다. 파리는 한참을 웅웅거리다 내려앉아서 몸의 기름이나 땀을 조금 핥을 뿐이며 간혹 상처나 부스럼을 만나면 황재를 하기도 한다. 파리는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일지라도 가리지 않고 파리똥을 갈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땀이나 핥아먹을 뿐이거나 오물을 떨어뜨릴 뿐이어서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은 찢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 ① 대조
- ② 분류
- ③ 분석
- ④ 예시

5. 다음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히다 [다치다]
- ② 대통령 [대 : 통령]
- ③ 난로 [날 : 로]
- ④ 국밥 [국뺨]

6.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단주의자일수록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음모의 사회를 만든다. 집단 내부에서는 지도자를 정점으로 지배-복종의 관계를 이루며 집단 밖의 타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배제한다. 반면에 개인주의자일수록 개방적인 사회를 만든다. 그들은 신뢰하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가식 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를 배려한다. 근거 있는 권위는 존중하지만, 비합리적 권위주의는 배격한다. 기만적이라기보다는 정직할 것이며, 집단적 공모보다는 공개적 토의를 통해 공적인 결정을 내린다.

- 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비교
- ② 사회 내 집단갈등의 원인 분석
- ③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정의
- ④ 집단 내에서의 개인의 역할 강조

7. 공공언어를 바로 쓰기 위해 한문 두 부사를 고쳐 쓴 사례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자는 노름으로 거지반 재산을 탕진하였다.  
→ 부자는 노름으로 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다.
- ② 그가 오늘 결근한 것은 필시 사연이 있을 것이다. → 그가 오늘 결근한 것은 틀림없이 사연이 있을 것이다.
- ③ 환경부 장관은 국회 연설에서 자연보호를 누차 강조했다. → 환경부 장관은 국회 연설에서 자연보호를 누누이 강조했다.
- ④ 대다수의 기업은 아무렇지도 않게 직원을 해고하였다. → 거개의 기업은 아무렇지도 않게 직원을 해고하였다.

8. ‘토끼와 거북이 경주’ 우화의 교훈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 ① 난형난제(難兄難弟)
- ② 막상막하(莫上莫下)
- ③ 진퇴양난(進退兩難)
- ④ 우공이산(愚公移山)

9. (가) ~ (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인화 문제에 대해 이용자들이 도구에 불과한 AI를 그 이상의 무엇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여 생겨나는 것이라 지적한다. 즉, 윤리 문제라기보다는 교정할 인식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 예를 들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사가 2015년 자신들이 개발한 개 모양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의 뛰어난 균형 능력을 보이기 위해 개발자가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는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을 때, 이에 대해 시청자들이 보인 엄청난 도덕적 분노와 비난 사례가 의인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다) 그러나 관계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과의 교류를 통해 AI의 존재 지위가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의인화의 문제를 단순히 교정할 인식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AI와 관련해 제기되는 전통적인 윤리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AI 로봇의 의인화 문제이다. 이 문제는 AI가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기 위해 모색된 과학 기술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과이다.

- ① (라) - (다) - (나) - (가)
- ② (라) - (가) - (나) - (다)
- ③ (라) - (나) - (가) - (다)
- ④ (라) - (다) - (가) - (나)

10.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동체를 위해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姿勢)로 임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줬다.
- ② 교황은 ‘가난한 자의 성자’를 교황명으로 택한 그 뜻 그대로 평생 청빈(淸貧)한 삶을 실천했다.
- ③ 공동체의 발전과 구성원들의 삶에 복무(服務)하는 지도자를 갖고 있는가.
- ④ 이제 추모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향한 자성(自性)의 거울이 돼야 할 것이다.



14. 다음 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무들은  
 난 대로가 그냥 집 한 채.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거기  
 깃들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까맣게 모른다 자기들이 실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지를!

- 정현종, 「나무에 깃들여」 -

- ① 허무주의
- ② 인간주의
- ③ 평화주의
- ④ 공생주의

15. 다음 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인공지능의 본질을 파악하여 투명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드는 것도 이용자의 힘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미디어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이 미디어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기회도 커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 )을(를) 이해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 ① 생명
- ② 장점
- ③ 가능성
- ④ 그림자

16. 표준어 사정 원칙에 따른 표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끄나풀’과 ‘끄나불’은 ‘끄나풀’을 표준어로 삼는다.
- ② ‘분침’과 ‘푼침’은 ‘분침’을 표준어로 삼는다.
- ③ ‘강남콩’과 ‘강낭콩’은 ‘강남콩’을 표준어로 삼는다.
- ④ ‘둘째’와 ‘두째’는 ‘둘째’를 표준어로 삼는다.

17. 다음 글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경제 활동도 유전자의 번식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신고전학과 학자들이 제시한 ‘한계효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처음에는 효용감이 크지만, 그 행동을 반복할수록 효용감이 점점 감소한다. 이를 ‘한계효용 체감(감소)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한계효용 이론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한계효용이 0에 이르면 소비를 멈추는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가정하지만, 생물학적 소비자(유전자)는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무한한 번식 욕구와 경쟁 심리를 지닌 비합리적인 사회적 개체들이다. 유전자는 자원이 허락한다면 짝짓기 횟수와 자식의 수를 더 늘리고자 하고, 자신이 가진 풍부한 자원을 상대방에게 과시하는 형태로 ‘번식 경쟁’이 일어난다.

원시 사회에서는 수컷들이 자신과 부양가족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사냥을 해서 주변에 나누는 식으로 번식 능력을 과시했다. 농경 사회로 접어들어 이후로는 잉여가치의 획득을 통해 본격적인 과시적 소비와 신분 향상의 추구가 시작됐다. 현대 사회에 와서는 잘 노는 것이 부와 능력을 드러내는 상징이 됐다. 이는 현대인들이 실제로 번식은 하지 않으면서 번식을 목표로 발동되는 가열한 경쟁 심리에 쫓겨 발버둥치는 괴상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 ① 유전자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 ② 현대인들은 경쟁에 쫓기고 싶지 않아 번식을 포기하고 있다.
- ③ 한계효용 이론에서는 소비자를 비합리적인 사회적 주체로 간주한다.
- ④ 현대 사회의 과시적 여가와 소비 행위는 생물학적 소비자의 합리적 경쟁 심리에서 비롯된다.

18.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 ② 그 집에서 누가 살았던지 기억납니까?
  - ③ 나의 바깥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 ④ 오래 입은 셔츠가 흐릿하게 색이 바랬다.

19.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훑날리느뇨

처마 밑에 호롱불 여위어가며  
서글픈 옛 자천 양 흰 눈이 나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머언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 김광균, 「설야」에서 -

- ①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 ② 영탄법과 비유법이 활용되었다.
  - ③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
  - ④ 화자의 애상적인 정조가 나타난다.
20.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하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모든 바이러스는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다.  
- 박테리아 a는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다.  
따라서 박테리아 a는 바이러스이다.

- ①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바이러스이다.
- ② 어떤 바이러스는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다.
- ③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 살 수 없는 바이러스도 있다.
- ④ 어떤 박테리아는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다.

21.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신을 따라서 중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겐 모름지기 부르는 호칭이 있다. 역관은 종사(從事)라 부르고 군관은 비장(裨將)이라고 부르며, 나처럼 한가롭게 유람하는 사람은 반당(伴當)\*이라고 부른다. 소어(蘇魚)라는 물고기를 우리나라 말로는 반당(盤當, 밴댕이)이라고 하는데, 반(盤)과 반(伴)의 음이 서로 같아서이다. 압록강을 건너면 소위 반당은 은빛 모자의 정수리에 푸른 깃을 달고 짧은 소매에 가벼운 복장으로 차림새를 갖춘다. 그러면 길가의 구경꾼들은 이를 가리켜 문득 ‘새우’라고 부르는데, 무엇 때문에 새우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무장한 남자를 부르는 별칭인 것으로 보인다. 지나가는 마을의 꼬맹이들은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일제히 “가오리 온다, 가오리 온다” 하고 외치며, 더러는 말꼬리를 따라다니며 다투어 외치는 바람에 귀가 따가울 정도다. ‘가오리 온다’는 말은 ‘고려인이 온다’는 뜻이다. 나는 웃으며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 가지 물고기로 변하고 마는구먼” 하니, 여러 사람들이 “세 가지 물고기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고 묻는다. 내가 “조선의 길에서는 밴댕이라고 부르니 이는 소어라는 물고기요, 압록강을 건너 이래로는 새우라고 부르니 새우도 역시 어족이고, 오랑캐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가오리라고 외치니 이는 홍어가 아니던가?” 하니 사람들이 모두 한바탕 웃는다.

\* 반당(伴當): 사신의 수행원

- 박지원, 「열하일기」에서 -

- ① ‘새우’는 ‘나’의 옷차림새를 보고 부르는 말이다.
- ② ‘밴댕이’, ‘가오리’는 이국인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다.
- ③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의 우연적 요소를 해학의 소재로 삼고 있다.
- ④ ‘밴댕이’를 반당(盤當)이라고 한 것은 한자의 소리를 빌려 적은 것이다.

22. 다음 글에서 ㉠ ~ ㉣에 들어갈 접속 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으로 미래를 전망할 때는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사람의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은 미래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국가와 기업의 투자나 정책도 그러하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 ㉠ ) 의사결정은 미래를 얼마나 치열하게 깊이 생각했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여기까지는 과거와 차이가 없다. ( ㉡ ) 대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방식대로 미래를 예측하면 모두 실패할 것이다. 전장의 '판'이 바뀐 것을 감안해야 한다. 통상 전투가 치열할수록 눈앞의 전투에만 집착한다. ( ㉢ ) 전투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눈앞의 전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모습이다.

- ① ㉠ 그런데, ㉡ 따라서, ㉢ 그리고
- ② ㉠ 그러나, ㉡ 따라서, ㉢ 그런데
- ③ ㉠ 따라서, ㉡ 그러나, ㉢ 그러나
- ④ ㉠ 그리고, ㉡ 그러나, ㉢ 따라서

23. 다음 글의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BTS와 K-pop으로 상징되는 한류는 이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 ㉠ )에 큰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 ( ㉡ )은(는) 문자 그대로 외국 정부가 아니라 공공, 혹은 공중을 대상으로 펼치는 외교 활동을 말하고 ( ㉢ ) 파워를 중시하는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그 개념도 많이 발전하여 외교를 행하는 주체도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기업, 일반인 등 민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 ① ㉠ 한국 문화, ㉡ 하드
- ② ㉠ 공공 외교, ㉡ 소프트
- ③ ㉠ 공공 외교, ㉡ 하드
- ④ ㉠ K-culture, ㉡ 소프트

24. 다음 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흙길이었을 때 언덕길은  
깊고 깊었다.  
포장을 하고 난 뒤 그 길에서는  
깊음이 사라졌다.

숲의 정령들도 사라졌다.

깊은 흙  
얕팍한 아스팔트.

짐승스런 편리  
사람다운 불편.

깊은 자연  
얕은 문명.

- 정현중, 「깊은 흙」 -

- ① 평화에 대한 갈구
- ② 편리함이 갖는 양면성
- ③ 문명화가 갖는 비인간성
- ④ 자연과 생명의 중요성

25. 다음 글의 집필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집 확산은 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피해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하고, 정상화를 위한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빈집이 일정 수준 이상 많아지면 주택소유자를 찾기 어렵거나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철거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먼저 겪은 선진국처럼 오랜 기간 집을 비워둔 소유주에게 벌금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 ① 트렌드에 대한 기술
- ② 사안에 대한 주장
- ③ 사실에 대한 설명
- ④ 개인적 느낌 표현